

[26]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7434194>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26, 2026-03-2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挨拶



出水 薫（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長）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第26号をお届けします。

2024年度に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は、設立から25周年を迎えました。そして2025年度は、言うまでもなく、朝鮮半島植民地解放80周年、そして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という節目の年でした。

韓国研究センターの英語表記は、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です。つまり地域研究としての韓国学（Korean Studies）の共同研究を促進する組織です。朝鮮半島の南北両政府のみならず、「在日」や高麗人など朝鮮半島に由来する集団などを包摂する朝鮮語・韓国語圏を学際的に対象とするのが韓国学です。

世間の関心は比較的に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に向いていたようですが、韓国学を対象とする本センターにとっては、当然に植民地解放80周年も重要な節目であり、あらためて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

しかしながら残念なことに、韓国側は、2024年12月の戒厳令・内乱未遂事件と、大統領の弾劾、新政権の成立が続き、政治の大変動に見舞われました。他方で日本も、同様に政治が混乱し、80周年と60周年のいずれも、じっくりと省みる環境にはなかったという印象です。

とはいえ2025年度、本センターは前年度をかなり上回る数の事業をおこなうことになりました。財政的には、例年同様に Korea Foundation から、日本国内の機関としては最大の支援を受けました。また本学からも、国際担当理事のご理解の下、特別に予算を増額していただきました。それにより、節目の年らしい多様な事業を展開できました。あらた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本センターが主催・共催したシンポジウム・セミナー・講演会は15回にのぼりました。またセンター教員のみなさんが、個別に韓国の研究機関や学会の研究集会やセミナーにも多数登壇しています。

また2025年度は、この間、センターと共同で多数の研究会・シンポジウムなどを企画・開催してきた九州韓国研究者フォーラムと公式の連携協力協定を締結し、フォーラムの代表をはじめとするみなさんに、センターのアドバイザーにご就任いただきました。

韓国の大学・研究機関との連携も進みました。センターとして、あらたに仁荷大学校国際関係研究所、誠信女子大学人文科学研究所、韓国島振興院と連携協力協定を締結しました。また九州大学・漢陽大学間の連携協力協定の締結にも協力し、ソウルで開催された記念学術大会にも参加しました。また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の第18回学術大会にも参加しました。

さらに第9回日韓市民未来対話の佐賀県での開催にも協力しました。純然たる学術研究活動のみならず、このような交流事業も、本センターの役割として大事なものです。

なお本センターの辻野裕紀副センター長が、4月よりNHKラジオ「まいにちハングル講座」の講師を半年間にわたり担当なされたことは、本センターの研究水準を示す事例として、特筆すべきことでしょう。

2026年度も、これらの活動と成果を基盤として、韓国学の発展のために、さらなる貢献ができるよう活動を継続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한국연구센터 센터장 인사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연보 제26호가 간행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2024년도에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는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반도 식민지 해방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국연구센터의 영어 명칭은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입니다. 즉, 지역연구로서의 한국학(Korean Studies)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조직입니다. 한국학이란 한반도의 남북 양 정부뿐만 아니라, '자이니치(在日)' 및 고려인 등 한반도에 기원을 둔 집단을 포괄하는 한국어·조선어권을 학제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입니다.

세간의 관심은 비교적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센터로서는 당연히 식민지 해방 80주년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를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측은 2024년의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신정부 수립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대변동을 겪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시기가 이어지면서, 80주년과 60주년 모두를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본 센터는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Korea Foundation으로부터 일본 내 기관 중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교에서도 국제 담당 이사의 이해와 배려로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환점을 맞이한 해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센터가 주최·공최한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는 총 15회에 달했습니다. 또한 센터 소속 교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한국의 연구기관 및 학회의 연구 집회와 세미나에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그동안 센터와 공동으로 다수의 연구회와 심포지엄 등을 기획·개최해 온 규슈한국연구자포럼과 공식적인 연계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포럼 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센터의 어드바이저로 취임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진전되었습니다. 센터 차원에서 새롭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섬진홍원과 연계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규슈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간의 연계 협력 협정 체결에도 협력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기념 학술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더불어 8월에는 세계 한국학 컨소시엄 제18회 학술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제9회 한일 시민 미래 대화의 사가현 개최에도 협력하였습니다. 순수한 학술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류 사업 또한 본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쓰지노 유키 부센터장이 4월부터 NHK 라디오 「매일 한국어 강좌」의 강사를 약 반년간 담당하신 것은, 본 센터의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이러한 활동과 성과를 토대로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